



TSAG/ITU-T 제2차 회의¹⁾

박기식 • 표준총회 부의장

ITU-T TSAG Vice Chairperson, WP3/TSAG Chairma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센터장

김구수 • 전략 및 계획전문위원회(AG01.01) 의장

한국통신 연구개발본부 표준운용부 부장

손 흥 • 작업방법전문위원회(AG01.02) 의장

TTA 표준기획본부 기획전략부 부장

I. 회의 개요

- 회의명 : The 2nd Meeting of the Telecommunication Standardization Advisory Group(TSAG), Geneva
- 회의기간 : 2001년 11월 26일 - 11월 30일
- ITU-T TSAG 2001년 11월(제2차) 회의 국가 대표단 및 SIO/ROA 회원 :
 - 국가 수석대표 : 박기식(ETRI 책임연구원 / 표준연구센터장, TSAG Vice-Chairman, WP3 Chairman)
 - 국가대표단 : 김용수(정보통신부 서기관, 제네바 대표부), 손 흥(TTA, 부장), 구경철(TTA, 팀장), 이준섭(ETRI, 연구원)
 - ROA : 이재섭(KT, 제네바 사무소), 김구수(KT, 부장)

- SIO : 박웅(ETRI, 연구원)

○ 회의 참석규모

- 25개국 180여 명(회원국/ROA/SIO, ITU-T/R/D 사무국 직원 포함)
- 회의 의제(Agenda) 및 관련 문서 : TD/3

II. 회의 주요 내용

- TSAG은 지난 2000년 10월 세계전기통신 표준총회(WTSA-2000, 몬트리올)에서 위임받은 ITU-T 표준화활동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 제2차 TSAG회의에서는 2002년 전권 위원회의(Plenipotentiary Conference)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2002년 이사회에 제출할 ITU-T의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로, WTSA-

1) 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모든 한국대표단(김용수 서기관(MIC), 구경철(TTA), 이준섭, 박웅(ETRI))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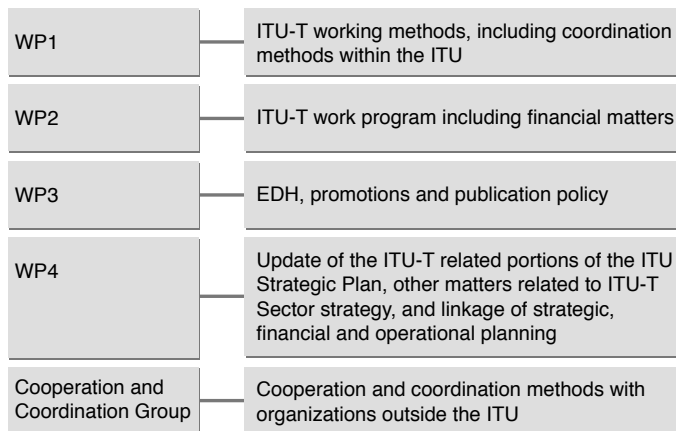
2000 이후 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온 ITU-T 개혁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ITU-T 작업 구조 및 방법의 개선, 각 SG별 활동상황 및 계획보고, ITU-T 전략계획, 외부 기구와의 협력방안 등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Working Group별로 이루어졌음

- 지난 제1차 TSAG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다양한 이슈 가운데에서도 특히, ITU의 중요한 현안인 ITU-Reform과 새로운 작업구조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짐
- ITU-Reform의 경우 그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주장되어 온 ITU-T내 새로운 표준화기구(Forum)의 설립을 위한 전단계로서 Pilot Forum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었으나,
- 유럽측이 ITU-T내 기술적 과제를 Pilot Project에서 수행하자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나 현재 ITU-T와 여타 표준화기구에서 수행되고 있지 않은 토픽을 발굴하여 Pilot Project를 수행하자는 입장으로 후퇴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장시간의 논의결과 특정 토픽에 대한 Special Focus Group의 설립을 통한 활동을 수행하기로 하였음
- ITU-T 작업구조의 경우 ITU-T Reform

과 관련하여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작업구조를 위한 일환으로, 현재 ITU-T 표준화작업의 핵심이 되는 현재 표준화과제 중심의 SG 조직에 대한 변경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수용하여 현장·협약(CS/CV) 및 WTSA의 역할변경 등에 대해 Correspondence Group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키로 함

1. TSAG 회의진행 구조

- 금번 회의는 지난 2001년 3월 회의에서 결정된 작업구조에 따라 진행되었음.
- Working Party 1 : ITU-T 작업방법 개선
- Working Party 2 : ITU-T 작업계획
- Working Party 3 : ITU-T의 EDH 및 Promotion
- Working Party 4 : Strategic Planning Group : ITU 전략계획 수정 등
-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Group : ITU 외부 기구와의 협력
- ITU-T 연구회기(2001-2004) 중 TSAG 작업구조 및 책임사항(그림 참조)



- Resolution 22, resolves 2 (Montreal, 2000)와 관련하여, Operational Group과 Strategic Group의 설립에 대해,
 - Strategy WP(Chairman : Mr. Kisrawi (Syria), WP4/TSAG)를 우선 설립하여, 제2차 TSAG회의에서는 WP4가 정식 회의를 가졌으며, Operational Group은 추후 TSAG에서 계속 관련 이슈를 검토하기로 함.
- WP2의 Mr. G. Williams가 정년퇴임함에 따라 제2차 TSAG회의(2001. 11.)부터 Mr. Jacques Boulvin(France Telecom)이 맡게 되었음.

2. WP 1(ITU-T의 작업방법)의 주요 내용

가. 권고승인절차(AAP : Recommendation A.8)의 중간 결과보고 및 향후계획

- TSB와 TSAG의장으로부터 약 9개월간의 AAP 구현결과에 대한 현황 및 회원들로부터의 Comment에 관한 보고가 있었음
 - ※ 참고 : 2002년 1월 부터 AAP 공지 (announcement)는 e-mail로만 되며, paper copy는 더 이상 배포하지 않음.
- 한국은 작업절차(AAP)의 추가적 개선, 효율성 제고 및 외부 기구에서의 Promotion을 위하여 AAP 구현의 결과에 대하여 TSAG이 주기적으로 평가할 것을 제안하였고, 호주와 독일의 AAP 구현과 관련된 추가적 개선사항들이 제안되었음.
- 논의결과, AAP의 투명성제고 및 평가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E-mail Discussion Group(tsagwplaapguide@itu.int, Coordinator : Mr W. Heidrich,

Germany)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논의후 차기 TSAG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나. TSAG 작업방법

- 지난 3월 회의에서 제기된 운영그룹 (Operational Group) 설치와 관련하여,
 - 영국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 운영그룹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프랑스, 미국 등은 WTSA-2000에서 TSAG에 집행권한을 위임하고 현재 ITU-T내 작업방법이 개선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표준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며, Operational Group은 TSAG의 기존 활동과 거의 중복되어 있으며 추가적 조직의 신설은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함.
- 논의결과, TSAG은 운영과 관련된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슈들에 대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통하여 TSAG Leadership Team, SG 의장들 그리고 TSB 국장은 서로 협력하여 이슈들에 대하여 논의한 후 TSAG 의장이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다. ITU Reform 이슈

- APT(일본, 한국, 호주)는 Reform과 관련하여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Project에 기반한 작업조직의 개편과 이에 따른 새로운 작업조직의 도입을 제안하였음.
- 캐나다는 권고승인절차 도입이전의 Draft Recommendation에 대하여 우선 Sector Member간의 동의를 통하여 Technical Specification을 결정하며, 이후 SG 회의를

통하여 ITU Recommendation을 결정하는 2 Stage 승인절차의 도입을 제안함

○ ITU-T SG Structure and Evolution

- APT(일본, 한국, 호주)는 ITU-T내 새로운 작업조직의 구성과 관련하여 Strategic Standardization Area에 의하여 SG를 새로이 구성할 것을 제안함

- 논의결과, TSAG은 ITU-T의 조직구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키로 함과 동시에 차기 회의에의 기고를 독려하도록 함

○ 논의결과, 캐나다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우선 Correspondence Group (tsagwplwm@itu.int, Coordinator : Mr Takahiro Yokoyama, Japan)을 만들어 APT와 캐나다의 제안에 관하여 논의후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APT의 ITU-T 기고는 현재 규정상 참관자 자격으로 제출되는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사무국측에서 이를 확인한 후 APT에 공지하기로 함.

라. A.7(Focus Group) 권고안 결정 (Determination)

○ Focus Group의 작업기한 및 책임사항에 대해 유연성을 확장하기 위하여, 모 SG의 검토하에 이를 연장할 수 있게 A.7을 수정하고, 차기회의에서 TAP에 따라 승인결정을 하기로 함.

3. WP2 (작업계획)

○ 각 SG의 활동상황 및 계획보고

- SG2 : IP 관련 작업반별 연구활동의 상황

과 외부 기구와의 협력 및 향후 계획보고

- SG7 : 지난 9월 SG10과 SG17로 병합되기 이전 최종 회의의 결과(ASN.1 Project, Security, Frame Relay 등) 보고

- SG15 : OIF(Optical Internetworking Forum)와의 Communication Process의 설립과 활동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보고

○ Study Group Questions

- SG4, SG15, SG16의 연구과제 수정 및 신설승인

• Q.6/4(Methodology and Quality assurance for TMN specifications)와 Q.12/4(Service Management and generic network element information models for TMN interfaces) 합병

• Q.2/15, Q.15/15, Q.15/16, Q.19/15 등 4개 과제 수정

• Q.15/16(DSR and DSV) 신설

- 특히 SSG의 경우 ITU-T 타 연구반 및 기타 관련기구의 연구 중복성이 제기되어 차기 SSG회의에서 이를 재검토하기로 하였음. 또한, Q.4의 경우 차기회의에서 기고서가 없을 경우 이를 없애기로 결정함.

○ 정보보호(Security)

- 지난 회의에서 표준화의 적극 추진이 강조된 분야로 Security Workshop(2002. 5.)이 한국에서 개최됨을 공지하였으며, 참고로 이에 앞서 개최되는 ITU Initiative에서의 워크숍은 정보보호정책 이슈를 다루며, SG17의 ITU-T 워크숍은 기술적인 사항만을 다룸을 사무국장이 확인함.

○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Standardization Gap

- 베트남에 의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표준화활동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개도국을 위한 권고에 대한 세부 설명서

- 준비 및 세미나, SG 회의 등의 개도국 개최 등을 제안
- 논의결과, TSAG은 ITU-D의 역할과 수행상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베트남과 호주가 제안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지함
- 기타, 워크숍 및 세미나, 작업 프로그램, 재정적 문제에 관한 사항이 보고 되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함.

4. WP3 (ITU-T의 전자적 문서처리, 홍보, 출판 및 과금정책)

- 본 분과는 지난 연구회기에 이어 재신임을 얻어 우리나라가 의장(박기식 센터장, ETRI)을 맡고 있음.
- ITU의 출판 및 과금정책
 - 지난 연구회기부터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권고의 무상제공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이 문제는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타 표준개발 기구와의 문서공유 요청과 ITU-T 홍보의 일환으로 시급히 처리되어야함을 인지하고, TSB 국장에게 차기 ITU 이사회에 권고의 무상제공을 제안하도록 요청함.
- 전자적 문서처리 체계의 구현방법
 - 한국에서 기고한 TIES 인터페이스 수정 및 ITU-T 웹 페이지 수정절차를 제안하여 TSB에서 이를 수용함.
 - EDH 관련 최우선 순위 실행계획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모든 회의장에 LAN 환경, 프로젝트 등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함.
- ITU-T 홍보
 - ITU-T 홍보활동에 대한 우선순위를 수립하고, 홍보 대상별, 목적 및 최종 목표별 실행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Correspondence group을 통해 지속적으로 갱신하기로 함.

- 향후 예정사항
 - EDH 관련 중장기 전략계획, 사용자 요구사항 개발, 공동 작업도구 개발, 무선 LAN 관련 사항 등을 E-mail reflector를 통해 토의하기로 함

5. WP4 (전략계획)

가. Reform 이슈

- APT는 WTSA 결의39(WTSA의 역할변화)에 따라 CS(현장)과 CV(협약)의 수정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하여 Correspondence Group (tsagwp4question@itu.int, Coordinator: Mr. Hiramatsu, Japan)을 설립하고 차기 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나. Pilot Forum

- 지난 3월 TSAG 회의에서부터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된 Pilot Forum 설립과 관련하여,
 - ETNO(Global ICT Standardization Forum 신설), 이탈리아가 신설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반면, 미국은 포럼설립에 대한 작업방법과 연구분야의 불분명 등을 들어 Pilot Forum의 신설에 반대하였음
 - 이의 절충안으로 Special Focus Group의 신설이 제안되었으나, 이 그룹의 활동결과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의 토픽이 정해지는 것을 전제로 TSAG이 Focus Group의 신설을 승인하였으며, 이 그룹의 구체적인 작업방법과 작업의 결과

등에 대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평가하기로 함

다. 전략계획

- 2004-2007년간의 ITU 전략계획의 수립과 관련하여 ITU-T 전략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를 2002년 이사회를 거쳐 PP에 보고하기로 함

6.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Group

- A.4(포럼과의 통신), A.5(ITU-T 권고에서 참고문헌 인용절차), A.6(국가 및 지역 표준 개발 기구와의 통신)에 따른 자격 기구 갱신
 - A.4에 따른 자격부여 기구 : IPv6 Forum , SDL Forum, OIF, ETIS, IPDR
 - A.5 & A.6에 따른 자격부여 기구: TTA, NIST
 - ※ 한국 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001년 6월에 자격을 부여받았음.
- 권고초안 성숙도에 따른 권고초안의 결정(Determination)
 - A.4(ITU-T와 포럼/컨소시엄간의 통신과정)
 - A.6(ITU-T와 국가 및 지역 표준개발기구들간의 협력과 정보교환)
- 권고초안의 승인(Decision)
 - A.5(다른 기구의 문서를 ITU-T 권고에서 참고문헌으로 인용하기 위한 일반절차) 수정 권고안
 - A.23(ITU-T와 JTC1간의 공동작업 절차)의 부기 A : ISO 및 IEC와의 정보기술에 대한 공동 협력작업 수정본

- A시리즈 권고안의 부속서(Supplement): IETF 및 ITU-T 협력 지침서

○ ITU-T와 IETF의 협력


- ITU-T와 IETF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IETF 및 ITU-T 협력지침서를 A시리즈 권고안의 부속서로 승인하였으며, 상호 새로운 작업리스트를 교환함으로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 세계표준협력(WSC) 발족

- 기존의 ITU-T, ISO, IEC 최고 관리자들이 각 기구의 협력사항을 논의하던 Joint Presidents Coordination Group(JPCG)의 명칭을 World Standards Cooperation(WSC)로 변경하고, 국제 표준화작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

III. 맺음말

- 금번 회의에서는 ITU Reform과 관련 민간의 권한이 강화된 새로운 표준화기구(Standardization Forum)의 설립이라는 유럽의 주장이, 이에 반대하는 미국 및 개도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실현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나, 일본, 한국, 호주 등을 중심으로 현재 표준화작업 접근방식인 표준화과제(Question)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 중심으로 하자는 제안이 제기되어 Correspondence Group이 설립되었으며, 이의 결과가 그 동안 지속되어온 Forum의 대안으로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각 SG의 활동현황 및 계획보고는 향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화 대응방향의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사항으로,

- 특히, ITU-T가 정보보호분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로 한 점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방향이라고 판단되며, 우리나라도 관련 사업자 및 연구기관, 제조업체 등이 새로이 구성될 Security Workshop(2002년 5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ITU-T는 사실표준화기구(포럼/컨소시움)와의 협력강화, 공식 표준화기구로서의 개혁 홍보전략 및 전자화체계 등을 강화함에 따라, 국내 민간 표준화기구인 TTA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음
- WTSA-2000의 결과에 따라 TSAG의 권한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여 자국의 이해를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TSAG이 세계 표준화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됨을 고려할 때,
 - 아국도, 정부 및 관련 표준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강화하여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것이 요청된다고 판단됨
- 차기회의 : 2002년 6월 17일 ~ 6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무선랜

“내년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ADSL 뒤를 이어 폭발적 성장의 신화를 가져올 서비스는 무선랜이다.” 무선랜이 올해 국내에서 제2의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신화를 이룰 솔루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국내 네트워크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시장에서 최고의 솔루션으로 무선랜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국내 최대 통신사업자인 KT를 비롯해 SK텔레콤 하나로통신 데이콤 등이 잇달아 이 분야 시장에 가세하고 있으며, 민간주도 공중무선랜 사업자인 무선브로드밴드서비스까지 서비스에 본격 나설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무선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중심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것은 현재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의 속도문제와 이용요금 문제를 무선랜이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또 개인휴대단말기(PDA)에 무선랜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퓨전단말기는 통신시장에서 새로운 수요를 촉발시켜 내년도 IT시장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보인다. PDA에 무선랜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PDA가 초고속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인터넷 접속이 가능케 됨과 동시에 VoIP기능까지 추가 지원돼 무료 음성전화까지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선랜이란 근거리통신망(LAN)을 구축할 때 물리적으로 유선을 사용하지 않고 무선통신을 이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산업, 과학, 의료(ISM)용으로 분배된 주파수인 2.4GHz대역을 사용한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무선랜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통신서비스 사업자도 사업용으로 ISM밴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데 힘입었다. 특히 무선랜은 표준으로 확정된 IEEE802.11b와 11Mbps의 비교적 빠른 속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일반화된 IP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을 끌고 있는 것이다. 2003년 경 부터 국내에는 정통부가 IEEE802.11a 표준으로 규정된 5GHz대역(54Mbps전송)의 주파수를 일반 사업자에 할당할 계획으로 있어 무선랜 서비스가 또 한 번의 도약기를 맞을 전망이다.